

광주교육청 국외연수 '셀프 심사' 도마

학벌없는 사회, 연수 참가 인원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심사 건수 올해 7건에 그쳐...외유성 논란도 대부분 통과 "예산남용·도덕적 해이 이어질 우려 있다" 지적도

광주교육청의 국외연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심사 건수는 미미하고 '셀프 심사' 논란도 일고 있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외연수 참가 인원은 2015년 20명, 2016년 27명, 2017년 54명, 2018년

167명에 이어 올 들어 7월 16일까지 133명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국외연수 심사 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8건, 올 들어 7건에 그쳤고, 외유성 또는 대가성 논란이 불거진 경우에도 대부분 통과됐다. 심사를 받지 않은 대다수 국외연수

는 사업부서장의 내부위임 전결을 통해 허가 처치돼 예산남용이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청이 공무상 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국외연수를 자제하려는 노력을 보이곤 있지만 크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학벌없는

사회는 지적했다. 국외여행 심사위원이 부교육감이나 국장, 과장 등 20명의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채 외부위원이 없어 '셀프 심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벌없는 사회는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 뿐더러 심사를 하더라도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 위촉직위원이 단 한 명도 없어 공무원들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국외연수 심사 대상과 위촉직 민간위원 확대,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 상시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경찰, 붕괴 클럽 마약 거래 가능성도 조사

경찰은 최근 클럽 내에서 마약 거래와 복용 등이 잇따르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마약 수사를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이 클럽인 만큼 마약 수사도 불가피하다. 검출 결과 등을 종합해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모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사상자 27명이 발생한 가운데 수사에 나선 경찰이 클럽 내 마약 거래 여부 등도 확인한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해당 클럽에서 일명 '뮬뮬(GHB)' 등 마약 유통 또는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수사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본부에 광주경찰청 마약수사대 인력을 배치했으며, 술병·술잔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에 마약류 감정을 의뢰했다. 또 클럽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확보, 수상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신봉우 기자

빈집 화재 범인은 반려 동물?...올해만 10건

지난해 8월 9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주민 2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주방 근처에는 고양이 사체만 발견됐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남겨진 고양이가 전자기기인 전자레인지 스위치를 눌러 발생한 일이었다. 고양이는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사 숨졌다. 올해 1월 18일 경기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같은 사고가 났다. 주인이 외출한 사이 홀로 남은 고양이가 전자레인지 스위치를 켜고 그 위에 있던 행주에 불티가 옮겨붙은 것이다. 당시 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꺼졌다. 보성군의 주택에서는 화목보일러 주변에 세워둔 쓰레기통을 애완견이 넘어뜨려 불이 났고,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에서는 애완견이 무선전화기 배터리를 물어뜯어 폭발한 사건도 있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집에서 기르던 반려동물이 불을 낸 사고는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0건 발생했다. 2017년에는 7건, 지난해에는 20건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주인이 반려동물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주의 깊게 관리하되, 외출 시 전자레인지와 같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전원을 아예 차단하고 만약을 대비해 조리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더위 날리는 시원한 거품 28일 강원 태백시에서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앙로에서 무더위를 날리는 물놀이 난장이 펼쳐지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4명 "성희롱 당한 경험 있다"

노동자 10명 중 4명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51%로 나타났다.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고용 변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3일 발간한 '고용영향평가브리프'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 연구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전체의 42.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20~50대 노동자 2000명(여성 85%, 남성 1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849명 중 경력을 단절하고 싶은 의사가(퇴사)가 있는 응답자는 22.7%(193명)였으며, 이직을 하고 싶은 응답자는 28.3%(283명)이었다. 즉 비자발적으로 고용을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가 피해자의 절반(51%) 수준인 것이다. 또한 과거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2.5%였다. 이 중 실제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근로자는 12.8%였고, 이직 경험자는 24.2%였다. 과거 직장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고용변동이 발생한 비율이 피해 경험자의 37%인 셈이다. 이 조사는 현재 근로자만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라 경력단절 이후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간접 경험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전체의 51.9%였다. 이 중 14.5%

경력단절을 할 의사가 있었고, 42.3%는 이직 의사가 있었다. 또 조사결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노동자 36.5%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장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고용상 불이익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경력을 단절하고 싶은 의사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상당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이런 의사를 변경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원하지 않는 퇴사·이직 의사가 있다고 답한 피해자의 78.8%는 피해자 보호조치·불이익 금지 조치가 강화되면 계속 회사에 다니고 싶다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스

이런판결 저런판결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승객 '징역 1년'

재판부 "수차레 반말과 욕설, 모욕감 줬"

말다툼을 벌이다 동전을 던지는 과정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70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70세 고령인 피해자에게 수차레 반말과 욕설을 하고 동전을 던지면서 심한 모욕감을 줬다"면서 "또 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고차 사기 사건에 관해서는 허위 매물로 선량한 피해자를 속여 범행했다"며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폭행및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을 찾은 숨진 택시기사 B)씨의 아들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폭언 등을 하고 동전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말다툼 이후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것과 택시기사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해당 사건은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족들이 임박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A씨는 지난 2017년 10-11월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면서 차량 구매자들에게 6차례에 걸쳐 8400여만원을 받아 갱신 혐의도 받고 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지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일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